

아저씨!

그거 주세요, 그거!

아, 이번 주 신간 말하는 거냐?

네네!

와~아!

용사

위대하신 황제 폐하의 검들이자

영웅의 칭호를 가진 자들.

그 중에서도 이 잡지 속 남자 '수호의 용사 길트'는

올해 최고의 용사, 혁신의 상징, 올해 국민들의 우상 1위,

그리고 내 우상이자

아~잇! 이게 뭐야?

조금만 더 잘생기게 찍어주지!

내 형이다.

길트 형! 오늘은 일찍 왔네?

그러게 말이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그러게요? 오늘은 일이 없더라고요.

저야 선배님들이 일찍 퇴근시켜줘서 좋지만요.

루트, 배고프지? 오늘은 맛있는거 사먹자!

오! 그러면 버터치킨 사먹자!

그러면 점장님,
저희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의종은 형제네.

저리 사이좋은 형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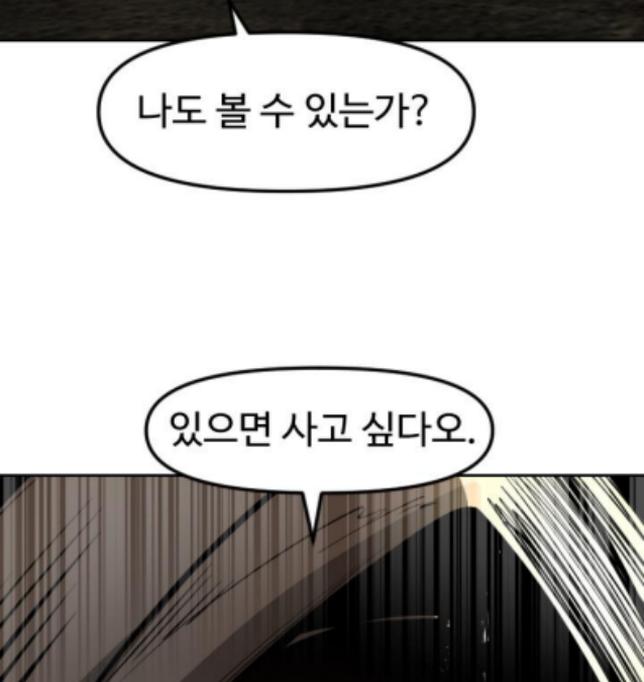
흔하지 않던데.

이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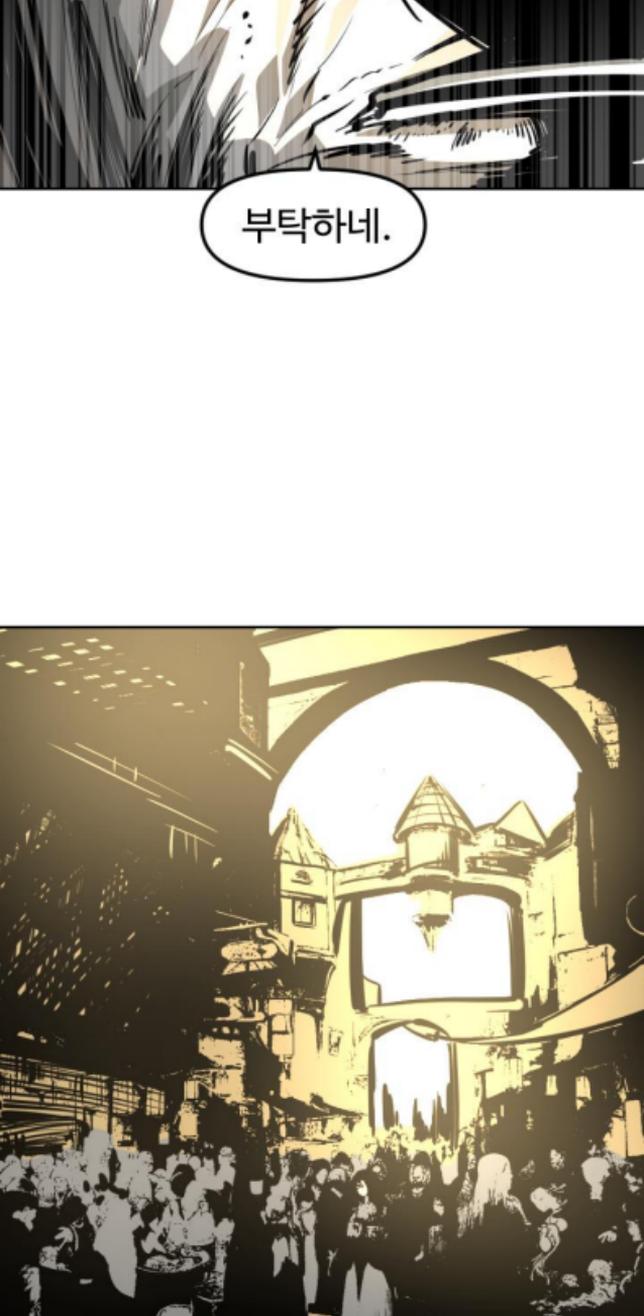
음?

저 형제들이
가져간 책.



나도 볼 수 있는가?

있으면 사고 싶다오.



부탁하네.



엥? 어머니!
저희 한 마리만
시켰는데요?



어서 받아요, 용사님!



서비스예요!

하하하,
서비스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데요?



아휴, 강 받아!

엇!
이게 누구야?



우리 마을
용사님 아니야?

아휴, 마침
생선 실~한게
들어왔는데!

수호의 용사님!
우리 집도 들려줘요!



먹을거 말고
식기는 필요 없어?

이거 다 가져가!
용사님 거야!

묵직

뭐랄까;;
짐꾼이 된
느낌인데.

미, 미안해.
루트.

아휴,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서
어떡해!

다들 저번에
용사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봐~

확실히
그날 용사님은
정말 멋있었지.

정신 통일을
명분삼아 쳐들어온
동대륙인들로부터

80대 1의 격전을 통해
지켜주신 그 모습!



마치 내
젊을적 모습이
떠올랐달까?

뭐라는거야 이 영감탱이가.
상자 들다가 손꾸락 작살나서
우는 사람이.



그나저나 용사님.
우리가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황제 폐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요.

다른 용사들이면 몰라도,
용사님은 청렴하고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 너무
섬섬해하지 말고
조심해줘요.

네, 아주머니.



새겨들을게요.



넌 버터치킨이
그렇게 좋냐?

당연하지!
버터치킨만 먹고 일주일 동안
배 채울 수 있어

루트, 만약에 말야.
제국의 백성들과

황제 폐하 둘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황제 폐하는 곧 제국이고
제국은 곧 백성들이잖아.

만일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견습 용사
이론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봐!

우리는 여느
형제들과 달리
언제나 사이가 좋았다.

어릴 적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약했다.



그런 나는
다른 녀석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걸 본 형은
언제나 나에게 말했다.



'내 동생 건드려는
놈들은 죽여버리겠어!'

실제로 녀석들을
죽이는 일은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는
때렸던 거 같다.

그런 형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영웅이었다.

흐음...

나 이런거에 약한데...

가끔 이런 귀찮은 문제를 냈지만

나는 우리 형이 좋다.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강자

그 중에서도 빛나는 인재!

나는 형과 같은 용사가 되는게

꿈이다.

루트!
저기 봐!

드래곤의 용사 '테오도어'님이셔!

너는 처음 보지?

와~!

진짜 용이다!

진짜로 여기가 맞는거냐. 테오도어.

'드래곤의 용사'의 파트너.
마로

그래, 여기다 마로.
다른 용사들도 이곳으로
오고 있다.



드래곤의 용사
테오도어

시작하자.



늘 있는 일이니
빨리 처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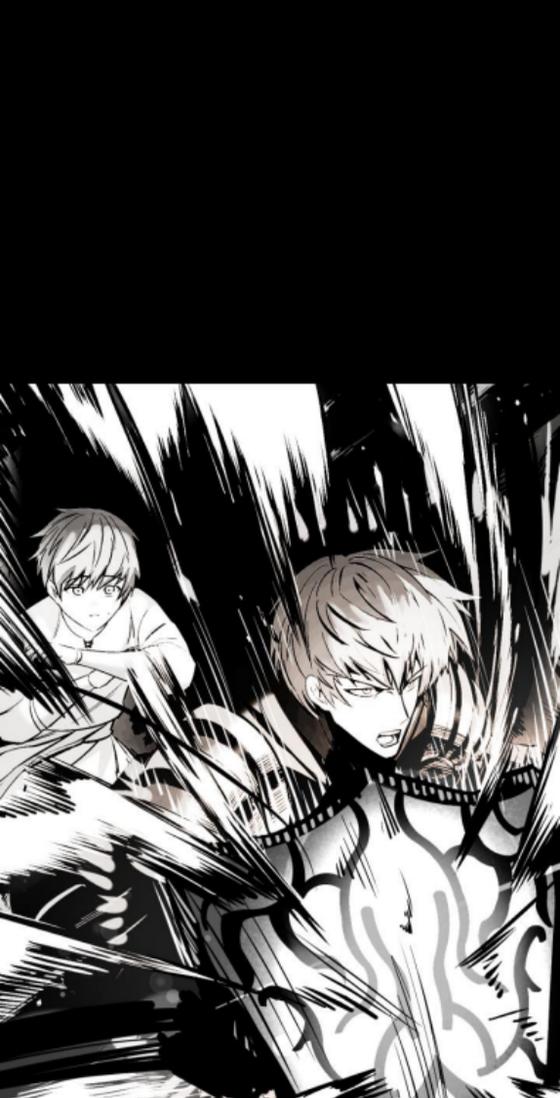


스으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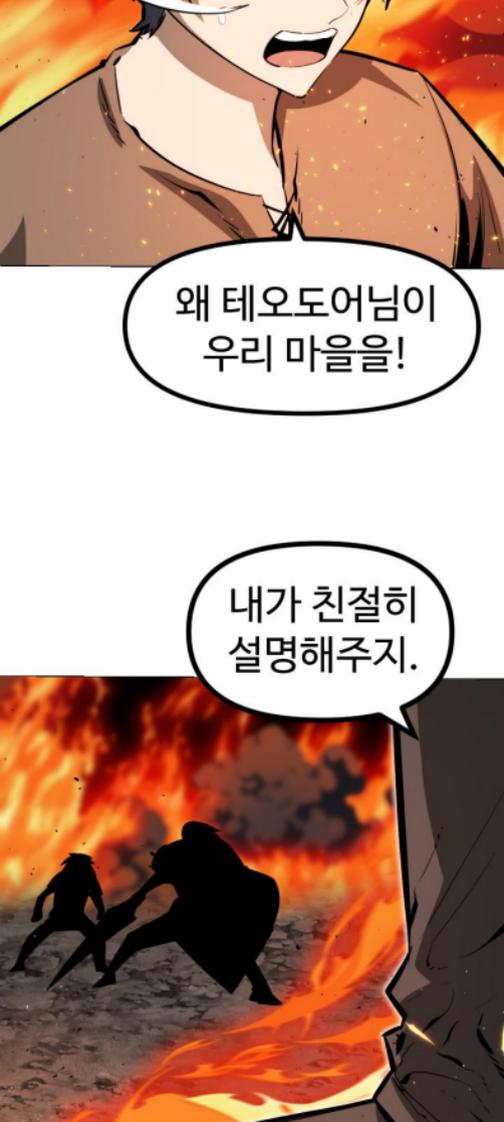
루트!



정신 차려,
루트!



혀, 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테오도어님이
우리 마을을!

내가 친절히
설명해주지.



길트! 너의
인지도가 폐하의 권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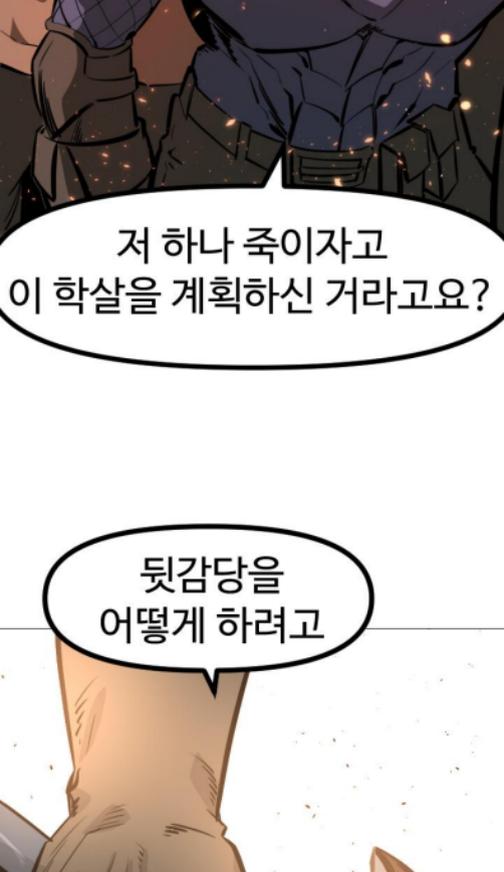
때문에 너와
너를 지지하는 이 마을을
날려버리기로 했다.

이게 바로
이 마을이 파괴된
이유다.



일섬의 용사
콜린

그, 그게
무슨 소리에요!



그런 말도
안되는...!

정말 그런 이유로
이정도 규모의 짓을
행하신 겁니까?



저 하나 죽이자고
이 학살을 계획하신 거라고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신 겁니까?

상관 없어.



우리가 이런 일
한두 번 하는 거는
아니거든.

너가 갑자기
폭주하는 바람에
우리가 저지했다.

라고 얼버무리면
그만이야.

만일 제가
여기서 죽으면

제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일의
증인이 될 수도 있으니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크웃,
이 자식이!



스



툼



툼



툼



화

너마저
배신했을 줄이야.



화

킨시아!

필살의 용사
킨시아

길트,
난 네가 착한 이라는걸
알고 있어.



그러니



원망하지
말아줘!

원망?
원망이고 자시고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어.

누구든 내 동생
건드리는 녀석은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어주겠어!!!

좋아!



그러면,
부쉬도 되는 거지?



파괴의 용사
아타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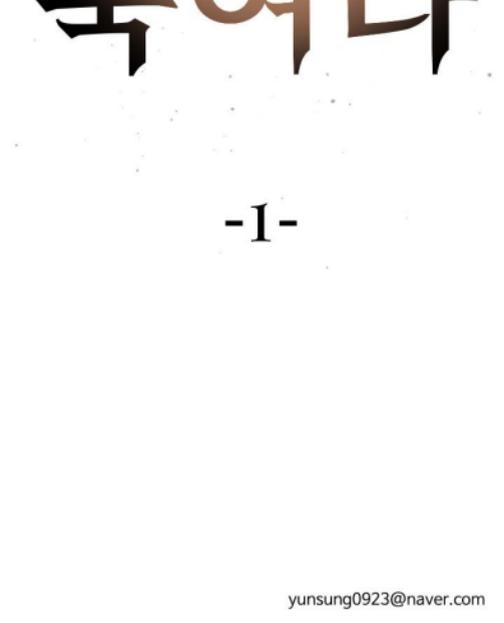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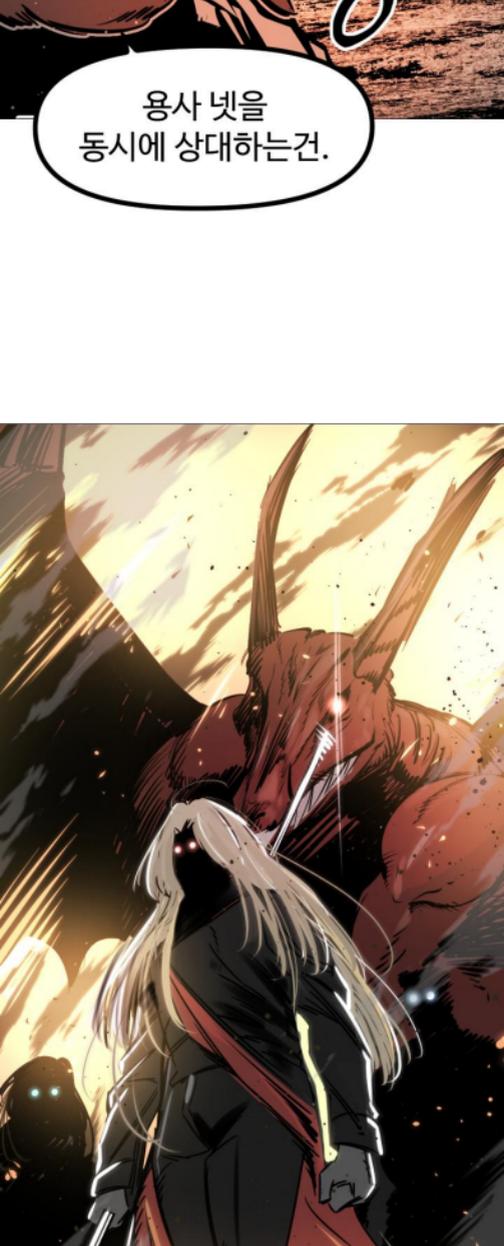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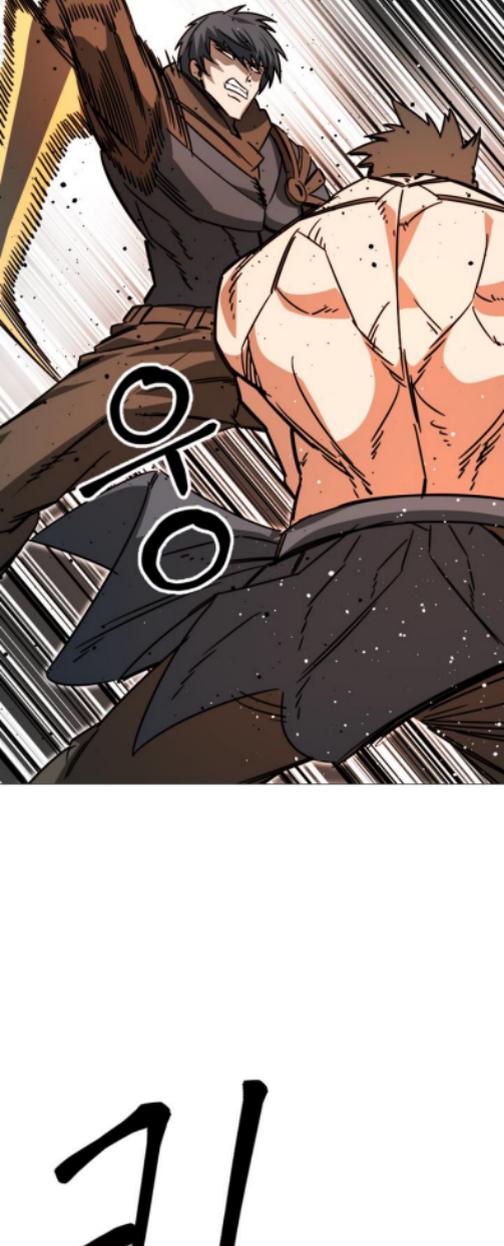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으으으으!!!
아타온! 너마저!!!





용사를 죽여라